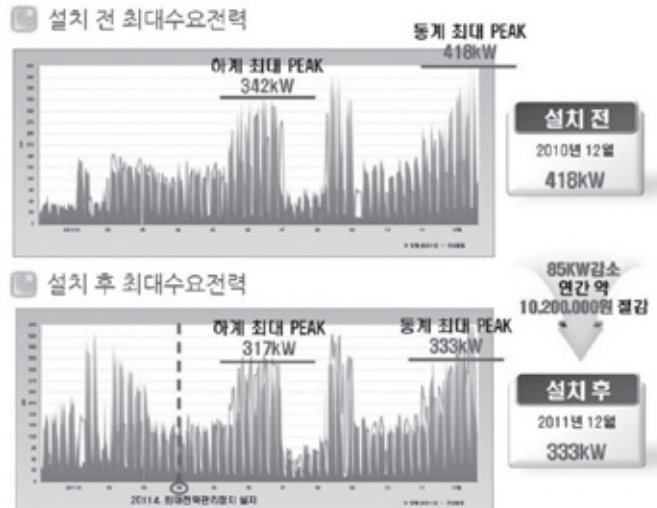


# 금호이엔지, 최대전력관리장치 출시



최대전력관리장치



최대전력장치 설치 전후 비교

금호이엔지(주)가 고객의 최대수요를 제어·관리해 최대전력(피크)을 저감시킴으로써 기본 전기요금을 절감시켜 주는 장비인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출시했다.

최대전력관리장치는 에너지 소비 효율 극대화와 사용 요금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지능형 에너지 관리 장치로, 절감하고자 하는 목표 전력량을 설정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수요 전력량을 감시하고 설비를 제어해 준다.

즉 사용자가 일일이 냉·난방기를 끄거나 켜는 등 조작을 하지 않고도 PC 모니터,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간편하게 전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체, 학교, 정부기관, 각 지자체 등에 적용되고 있는 피크요금제의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은 7~9월, 12~2월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지점을 기준으로 기본료를 산정하게 된다.

최대전력관리장치는 이러한 피크지점을 줄여 주는 장비로서, 피크지점을 줄여주면 1년 동안 기준이 되는 기본료가 저렴해진다. 이 장치가 여름철/겨울철 냉난방기 또는 산업장비들을 연결시켜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전력보다 높아지면 장비를 하나씩 끄고 전력사용량이 목표전력보다 낮아지면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어하는 장비들로는 EHP(천정의 시스템에어컨), 스탠드에어컨, 실내기히터, 냉동기, 공조기 등이며, 피크지점을 측정하는 방식은 하루 24시간을 1,440 분으로 보고 15분 단위로 나눠 96번 데이터를 측정하게 된다.

사용한 에너지의 현황을 분석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요금 확인이 가능하고, 에너지 사용량 측정도 가능하다. 또 전력설비 통합 원격 관제시설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